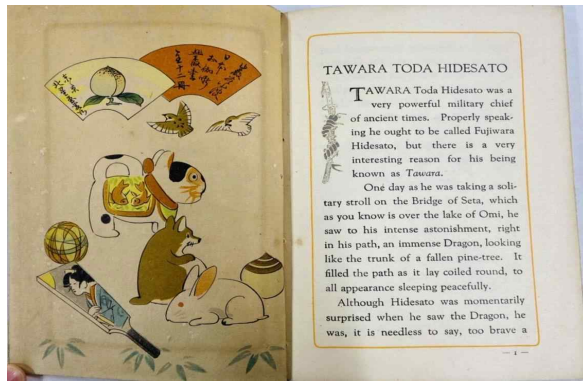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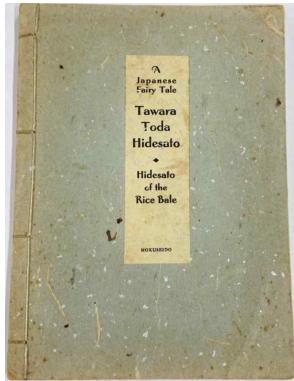


북성당의 ‘Iwaya Sazami’s Japanese Fairy Tales’ 출판과 그 의의에 대해서

오카모토 아즈사 (간사이대학)



(왼쪽)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 Tawara Toda Hidesato’ 표지

(오른쪽)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 Tawara Toda Hidesato’ 앞면지 및 본문 1페이지

1. 개요

본 발표는 1938년 북성당(도쿄시 칸다구 니시키쵸 3-12)에서 출판된 영자 번역 일본 옛날 이야기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에 대해 그 출판 목적을 밝히기 위함이다.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가 출판된 1930년대 북성당은 서방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본을 소개하는 서적을 판매하는 출판사였다. 북성당의 일본 소개 서적 출판은 국제연맹을 탈퇴한 이후의 일본이 서구 사회로부터 받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문화를 알리는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된 데 따른 것이다. 북성당이 간행한 영자신문 ‘The Pole Star Monthly’ Vol.14 No.6에 따르면 북성당은 ‘서구 국가들에 대해 일본 국민성을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서적으로, 메이지 시대에 출판된 일본의 옛날이야기를 찾아내 장정을 양장본에서 일본식 장본으로 바꿔 출판했다. 북성당이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를 일본식 장본으로 출판한 배경에는 서양의 인쇄 기술이 생기기 이전부터 일본 내에 뛰어난 인쇄 및 제본 기술이 존재했음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적 국가로서의 일본을 연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북성당의 출판 활동

2.1 개요

먼저 북성당의 개요를 살펴보겠다. 북성당은 1915년 나카츠치 요시타카에 의해 설립된 출판사이다. 설립 초기에는 주로 영어 참고서를 출판했다. 1920년대부터 영어 참고서에 더해 라프카디오 현과 관련된 서적 및 일본 문학 작품을 영문으로 번역해 출판하기 시작했다. 이후 북성당의 출판물은 미국과 영국 서점에서도 취급되었다. 특히 북성당의 현 관련 서적은 미국에서 출판된 현 전집에는 누락된 글을 수록하고 있으며 가격 역시 저렴해 일본 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2.2 1930년대 북성당에 의한 일본을 소개하는 서적 출판

이어서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가 출판된 1930년대 북성당의 위상을 확인해보자. 1930년대 북성당은 해외용 일본 소개 서적을 출간했다. 북성당의 출판 목록에는 '일본 및 극동관계서 기타'라 칭해지는 서적군이 있다. 1939년도 출판 목록에는 '일본 및 극동관계서 기타'에 47개의 서적이 소개되어 있다. '일본 및 극동 관계서 기타'에는 일본의 생활 모습을 소개하는 것(G.W.Show 'Living in Japan' 등)이나 일본에서 전해지는 관습이나 문화를 소개하는 것(G.Caiger 'Dolls on the Display', 후쿠키타 야스노스케 'Cha-no-yu' 등), 일본인 전기(키요오카 에이이치역 '후쿠오 자전', 이지치 스미마사 '오오쿠마코우전' 등), 일본사(A.B. Scherer 'The Romance of Japan' 등), 일본 문학 영문 번역서(G.W. Shaw 역 'Tales Grotesque and Curious(라쇼몽 외) 등), 동아시아 정세를 논하는 것(A.B.Scherer 'Manchukuo'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38년도 북성당 출판 목록에는 북성당의 출판물이 가진 특색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하나, 활자 및 인쇄술의 미려함 활자는 대체로 구미 최선의 것을 뉴욕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구입한, 달리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활자가 고르지 않거나 선명하지 않거나 요철 등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중략) 여러 형태의 문자, 가령 한자의 명조형과 청조형을 섞고 섞어 엮은 형태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잉크는 가장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쇄의 선명함과 뛰어난 아름다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나, 용지의 우량 당사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북성당 고유의 최상급 용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본의 견고함 장정의 천은 당사 별제의 우량품을 이용하고 모양, 철자법 등은 당사 특유의 방식으로, 외관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구멍, 실, 꿰매는 천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며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정성껏 제본합니다.

하나, 저렴한 정가 실질 그 자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 최고급 물품만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 무의미한 광고비 등은 생략해 가능한 한 독자분들의 부담을 줄이며 가장 저렴한 정가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북성당의 책을 한번 접해본 분이라면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저희는 원래 우리 문화를 해외에 소개할 목적으로 일찍부터 고이즈미 야쿠모의 각 저서를 비롯해 현대 일본의 대표 소설 혹은 극부터, 최근에는 우리의 풍속이나 관습 혹은 정치 외교에 관한 각종 서적을 출판해 세계적으로 호평 받고 있으며 이제 36개국에 달하는 해외 시장에도 북성당 책이 진출하게 되어 우리 문화를 위해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기쁨 뿐입니다.

2.3 1930년대의 국제 정세와 북성당

북성당의 일본 소개 서적 출판은 당시 일본의 대외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1939년도 북성당 출판 목록에 소개된 '일본 및 극동관계서 기타' 47점 중 43점은 1933년 이후 출간된 서적이다. 즉 90%는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한 이후 출판된 것이다.

1934년에는 국제문화진흥회가 설립되었다. 일본의 문화를 서구권에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무성 계열의 외부 단체다. 국제문화진흥회의 사업 골자는 총 10종이 열거돼 있는데, 첫 번째는 '저술, 편찬, 번역 및 출판'이 꼽힌다. 해외에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출판물을 활용한 홍보가 유력하게 여겨진 것이다.

3.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에 대해

3.1 개요

북성당은 1938년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를 출간했다.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는 전체 12편('Momotaro', 'The Jewel Spring', 'The Crab's Revenge', 'The Mirror of Matsuyama', 'The Old Man Who Made Trees To Blossom', 'The Goblin Mountain', 'The Tongue-cut Sparrow', 'Tawara Toda Hidesato', 'Do Nothing Taro', 'The Tea-kettle of Good Luck', 'The Story of Kachi-kachi Yama', 'The Old Man with the Wen')으로 구성된 일본 옛날 이야기 영문번역본이다.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에는 원작과 저본이 존재한다. 원작은 1984년부터 1986년에 걸쳐 출판된 이와야 사자나미편 '일본 옛날이야기'다. '일본 옛날이야기'는 아동 문학작가 이와야 사자나미가 저술한 총 24편의 일본 옛날이야기 총서이다. 당시 유력 출판사였던 박문관에서 출판되기도 했으며 출판이 시작된 후 일본 전국에 널리 보급되며 '일본의 옛날이야기의 정본'이라 칭해지기까지 했다. 저본은 이와야 사자나미편 'Iwaya's Fairy Tales of Old Japan(일영대역 일본옛날이야기)'이다. '일본 옛날이야기'의 전반 12편을 개정, 영역하여 일영 대역화 한 텍스트이다. 1903년부터 1904년까지 에이가쿠 신보사에서 초반을 출판했다. 또한 초판 출간 후 10년이 지난 1914년에는 판권을 이어받은 도미타 분요도에서 재판이 출간되었다.

북성당은 1938년에 도미타 분요도로부터 'Iwaya's Fairy Tales of Old Japan'의 저작권을 사들여 영문 부분을 추려내 개정한 후 장정으로 '이와야 사나자미의 일본 동화'로 재출판했다.

3.2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 도서

이어서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의 도서 정보를 알아보겠다. 본 발표에서는 하나의 예시로써 발표자가 소유한 'Tawara Toda Hidesato'를 통해 도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장정은 봉철장이다. 표지는 연한 푸른색으로 염색한 운용지로 전체에 은박 가루가 뿌려져 있다. 표지 중앙에는 단책형의 제침이 부착돼있다. 제침은 무염색의 운용지이며 은박 가루가 붙어 있다. 제침에는 가로쓰기의 알파벳으로 총서명(A Japanese Fairy Tale), 서명(Tawara Toda Hidesato), 제침(Hidesato of the Rice Bale), 출판사명(HOKUSEIDO)가 인자되어 있다. 또한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 전 12편의 표지는 모두 운용지를 사용하나 각 편의 염색이 서로 다르다. 또한 제침에 염색이 되어있는 것도 있다. 즉, 'Momotaro'는 찰흙색의 운용지에 적갈색의 제침, 'The Jewel Spring'은 옥색의 운용지에 무염색 제침, 'The Crab's Revenge'는 적토색의 운용지에 무염색의 제침, 'The Matsuyama Mirror'는 홍색 운용지에 무염색이 제침, 'The Old Man Who Made Trees To Blossom'은 연한 먹빛의 운용지에 무염색의 제침, 'The Goblin Mountain'은 매우 옅은 남색의 운용지에 무염색의 제침, 'The Tongue-cut Sparrow'는 솔잎색의 운용지에 무염색의 제침, 'Do-Nothing Taro'는 고색의 운용지에 옥색 제침, 'The Tea-kettle of Good Luck'은 갈색빛 쥐색의 표지에 무염색의 제침, 'The Old Man with the Wen'은 남회색빛 표지에 붉은색 제침이다.

법량은 세로 16.0(cm)X11.7(cm). 정수는 14정. 표제지는 없으며 본문 13정(이 중 1정은 접어 삽입한 삽화(18-19쪽)과 목차 1정으로 이루어진다.

앞면지와 뒷면지는 다색 인쇄이다. 면지에 이용되는 종이는 상부에서 하부에 걸쳐 연분홍부터 연두색으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돼 있고 상부에는 백발로 벚꽃이 하부에는 대나무 잎

이 인쇄되어 있다. 앞면지에는 2장의 부채면 및 두 마리의 참새, 종이모양 개, 너구리, 공, 법주, 토끼, 깃털판이 그려져 있으며 주홍색, 황색, 연두색, 갈색, 황토색, 짙은 녹색, 하늘색 등 8가지 색으로 채색돼 있다. 상단에 그려진 두 장의 부채면 중 한쪽에는 ‘이와야 사자나미 일본 가충서전12권’이라 적혀 있다. 다른 쪽 면에는 복숭아가 그려져 있고 복숭아 그림 왼쪽 옆에는 ‘동경 북성당 발행’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뒷면지에는 2마리의 벌, 표주박, 화살, 옷칠한 술잔, 찻잔이 그려져 있으며 황색, 갈색, 회색, 주홍색, 짙은 녹색 등 5가지 색으로 채색돼 있다. 상부에는 네모난 테두리가 2개로, 겹치는 위치에 그려져 있다. 한쪽에는 ‘판권소유 불허복제’라 인쇄돼 있고 다른 한쪽에는 판권장이 부착돼 있다. 판권장에 따르면 발행 및 인쇄일은 각각 1948년 8월8일, 1948년 8월12일이다. 덧붙여 앞면지, 뒷면지, 판권장은 12편 전체 공통이다.

본문은 가로쓰기한 영문이다. 본문 중 18-19쪽 사이에는 다색채 삽화가 한 장 접혀 있다. 다와라노 도다가 용신에게 선물을 받고 용신의 신하들과 함께 용궁을 떠나는 장면을 그린 삽화로, 황색, 연두색, 하늘색, 홍색, 주황색, 회색 등 6가지 색상으로 채색되어 있다. 다색채 삽화는 모든 편에 반드시 한 장씩 끼워 넣었다.

목차에는 총서명(Hokuseido's Japanese Fairy Tales), 원작자(Iwaya Sazanami), 정가(Each vol. 50 cents in U.S.A. 2s. in Europe), 전12편의 타이틀, 출판사명과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목차는 12편 전체 공통사항이다. 정가가 해외 통화로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구미 지역 판매를 상정한 서적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의 부속품으로서 띠와 12편을 한꺼번에 수납할 수 있는 상자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마무리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는 메이지 시대에 제작된 일본의 옛날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것이며 일본인의 국민성을 서구사회에 인식시킬 수 있는 텍스트로서 서구권 국가 대상으로 출판되었다. 북성당은 출판에 있어 근대 이전의 일본식 장본을 본뜬 장정을 채택했다. 그러나 영문을 인쇄할 때는 뉴욕에서 입수한 최신 활자(알파벳)를 사용했다. 즉, 일본의 전통적인 제본 기술과 해외에서 가져온 최신 인쇄 기술을 갖춘 서적으로 출판했다고 볼 수 있다. 북성당의 ‘Iwaya Sazanami's Japanese Fairy Tales’ 출판 사업은 일본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뛰어난 출판 기술이 존재함을 서구사회에 시사하고 문화적 국가로서의 일본을 연출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出版タイムス社・出版通信社・出版研究所 共編『現代出版業大鑑』、現代出版業大鑑刊行會、1935年
 國際文化振興會 編『財団法人國際文化振興會事業報告書. 昭和10年度』、國際文化振興會、1937年
 木村小舟『少年文學史 明治篇上卷』童話春秋社、1942年
 帶の表紙側には「Favorite Stories Retold for Children of Other Lands」、前見返し側に「Price 50Cents in America 2s in Europe」「日本内地 定價各八拾錢」、後見返し側に「Made in Japan」と印字されている。
 函は紙製であり、表に「FAVIRITE ATORIES RETOLD FOR CHILDREN OF OTHER LANDS」「JAPANESE FAIRY TALES In Twelve Vols」「THE HOKUSEIDO PRESS: Tokyo」「Made in Japan」と印字された紙が貼付されている。函の内側には各編に収録された目次の内容に、「Illustrated in colours with Brush Paintings by Famous Japanese artist.」「Printed on Hand-made Paper specially Manufactured for the Volumes.」という2文を加えた紙が貼付されている。